

종합·해설

사라진 오세훈 변수 ‘與心착잡’ 떠오른 문재인 카드 ‘野心만만’

대선 예비후보 부침 대권지형 요동

여야 대선 예비후보군들의 부침(浮沈)이 이어지면서 대권지형이 벌써 출렁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야권에서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급부상으로 대권 구도가 요동치는 것이다.

○오세훈 불출마=여권에서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다른 대권 주자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큰 만큼 ‘박근혜 대세론’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친이(친이명박)계의 한 의원은 14일 “친이계가 지원할 수 있는 잠룡인 오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세론’을 위협하는 변수 중 하나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경선관을 키워야 한다’는 전략을 생각해 왔던 친이계 입장에서는 ‘수단’ 하나를 잃은 셈이다.

친이계 전여의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리기에 더 많은 대선 후보들이 뛰어야 하는데, 오 시장이 그만둔다는 게 특이하겠느냐”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범친이계 주자들 간 결속력 강화와 새로운 ‘관 키우기’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시너지 효과를 의식해 그동안의 느슨한 연대를 강화, 박 전 대표와 각을 세울 수 있다. 여기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머지않은 시점에 당으로 복귀하면

‘정몽준-김문수-이재오’ 3각 연대가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

○아련 손학규-문재인 양강 구축=야권에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양강 구도를 구축해가고 있다. 손 대표는 4·27 재보선을 계기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를 추월, 1위로 올라섰으나 이후 지지율이 약간 빠지자 문 이사장이 빠르게 부상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 6월 출간한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7월말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시민사회진영과 함께하는 ‘아련통합 원탁회의’를 통해 공개적인 통합 행보가 나서면서 손 대표를 따라잡고 있다.

아련 내부에선 두 사람의 양강 구도가 야권에 대한 관심과 관심을 키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손 대표는 눈 앞의 지지율에 연연

하지 않고 ‘수권 정당론’과 ‘균형 야당론’을 기치로 한 민생진보 행보를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진보 지지세력은 물론 중도층까지 흡수해야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야권의 대선후보가 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대선후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이사장은 공개적인 현실정치 참여를 거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선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이사장의 그동안의 태도와 행보와는 다른 현재의 입장을 정치참여로 해석하는 것이다.

회고록 출간 당시만 해도 “정치적 행보로 비칠 수 있다”며 거절했던 북콘서트에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린다. 지난달 서울에 이은 세 번째 행사다. 오는 17일에는 재야인사 중심의 통합추진모임 제안자 모임에도 참석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투표하세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무상급식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김문수 서울시장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진하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연합정당론’ 논란

각 당 정체성 유지 장점 ‘가설 정당’ 역풍 우려도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합정당론을 제시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최근 야권대통합의 현실화와 관련, 연합정당 구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 이사장이 제시하고 있는 연합정당론은 정당 내에서 각 정파의 독립성을 인정해 정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요한 법안 처리에도 당론을 강제하지 않으며, 당무도 정파의 지분을 반영해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정파등록제와 정파명부식 투표제를 내세운 민주당의 대통합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합정당론은 대통합을 하면 민주당에 흡수 소멸될 수 있다는 소규모 야당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대통합시 각 정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연합정당론에 아직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정당론이 말 그대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구성되는 ‘가설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를 위한 ‘급조 정당’으로 평가받으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복잡하게 얽힌 총선 공전을 놓고 각 정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권대통합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인영 야권통합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구상했던 정파등록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야권 대통합을 위한 본격적 노력을 할 때”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민주당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야권 대통합은 민주당에 의해 최소한의 정책연대로 손쉽게 파기되는 마당에 통합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세훈 ‘배수의 진’ ... 민주 “신경 쓰이네”

보수층·친박계 결집 가능성 경계 “야에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2일 내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함에 따라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섬에 따라 보수층 결집과 주민투표 여론 환기로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여권의 대선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기에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주민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철저한 ‘무시 전략’을 고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 불출마와 무상급식은 이슈 면에서

권의 총결집 가능성도 경계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필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 청와대 핵심 측근들의 발언을 겨냥, 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나라당 서울시장위원장 이종규 의원은 1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20~25% 수준이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투표율이 오 시장 거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도 “투표율이 30%대로 아슬아슬하게 지면 그래도 할 말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투표 거부운동으로 안됐다고 하면서 못 물러나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무상급식 주민투표 D-9 여야 총력전

한나라, 전단지·현수막 거리 선전전 민주, 유세차·로고송 준비 불참 운동

여야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열을 앞둔 14일 총력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주말을 기해 서울시내 48개 당원협의회별 당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반면 민주당은 무가치 광고와 유세차, 플래카드, 당원조직을 총동원해 투표 불참 운동을 나섰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위원장이 이종규 의원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오늘 행정동별로 함께 이상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서울시내 48개 당원이 각각 30개 정도씩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각 당원에 전단지 1만장과 어깨띠, 피켓 등을 내려보내 이번 주부터 지역중심가에서 본격적인 거리 선전전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48개 당원이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 주민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는 당원협의회

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건의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며 각 당원에 ‘배수의 진’을 치도록 주문했다.

민주당은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내에 배포되는 무가치에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광고를 삼기로 했다. 서울시당은 조만간 서울을 12개 권역으로 나눠 유세차를 가동하고 로고송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과잉홍보, 사전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따지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거부를 호소했다.

이인영 공동위원장은 “주민투표 운동이 관계 동원 투표, 물량공세 관련 징후, 끊임없는 불법행위 의혹 등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를 거부해 아이들 밥상을 지키겠다는 분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설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1 교육기간 : 2011년 9월 9일(금)~2012년 6월말일까지 : 1년과정
* 매주 금요일 주1회 19시~21시 교육

2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

3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 각종선거출마예정자, 전문직 및 직능별종사자, 남양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4 교육과정
대학 및 연설기법, 라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 발성 훈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면접 30초 안에 답변방법 등

5 교육요령 : 실습 위주 교육(실습70%, 이론30%)
*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시까지 실습 위주 지도

6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11년 8월 1일(월) ~ 8월 31일(수)
* 등록시간 : (월) ~ (금) 10 : 00 ~ 17 : 00
* 등록장소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과 (호실관 4층)

7 등록방법 (수강료 : 1년 400,000원 - 분할납부 : 학기당 200,000원)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 광주대 평교원)

8 수료 후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진행사 추천, 원우회 월 1회 모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지도교수 : 010-5692-9998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 교육과학기술부(2010-1호)국가공인

구분	광주여자대학교 (13기)	광주교육대학교 (제4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1. 9. 2(금) 09:10~12, 1(금) 오후반: 2011. 9. 2(금) 14:10~3, 2(금) ·토요일 오전반: 2011. 9. 3(토) 09:10~12, 1(토)	·목요일 오전반: 2011. 9. 8(목) 09:10~3, 2(목) 오후반: 2011. 9. 8(목) 14:10~1(목) ·토요일 오전반: 2011. 9. 10(토) 09:10~3, 2(토) 오후반: 2011. 9. 10(토) 14:10~1(토)
모집기간	2011 8 1(월)~9 3(토)	2011 8 1(월)~9 10(토)
수업기간	2011. 9. 2(금)~2012. 2. 11(토) (6개월 24주 98시간)	2011. 9. 8(목)~2012. 2. 18(토) (6개월 24주 98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4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4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 2년제연수과정 이수 총정량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일반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회 강사 추천 및 회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법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5급)취득/회 부여	·1, 2년제연수과정 이수 총정량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일반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회 강사 추천 및 회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법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5급)취득/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나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나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억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기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름 부쳐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1년 하반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초급	8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학 고급	9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학 초급	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2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 고급	9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20,000원	

● 조선대 등록 - 8월 1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 1일 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인,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속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